

21세기 생태담론, 거피취차

박 혜 순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환경철학, 도가철학

주 제 어 소비주의, 자발적 소박함, 눈의 욕망, 배의 욕망, 거피취차

요 약 문 북태평양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GPGP)은 지구가 생존불능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조명탄의 하나에 불과하다. GPGP는 소비주의의 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먹이사슬의 밑바닥부터 생태계의 생명력을 조직적으로 파괴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한 실천적 담론이 바로 '소비 중심적 삶에서 자발적 소박함으로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도덕경』의 '거피취차(去彼取此)'라는 사유의 틀로 해법을 모색한다. 자연적 욕망은 취하고, 인위적 욕망은 버리는 것이다. 노자가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고 할 때, '저것[彼]'은 소비지향적인 '눈의 욕망'이고, '이것[此]'은 존재유지에 필요한 '배의 욕망'이다. '저것'은 소비주의 이념의 성립요건이며, 동시에 소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며, 자연의 생존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존재기반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소유론적 욕망인 '저것'을 벗어나 존재론적 욕망인 '이것'으로 돌아야 하는 것이다. 생태의식의 변화 없이 이 세계에서 생명가치가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접 수 일 : 2018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13일

생명연구 제49집 2018년 8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9, Aug 2018, pp. 331~370
<https://doi.org/10.17924/solc.2018.49.331>

21세기 생태담론, 거피취차

박혜순
 서강대학교

I. 들어가며

2018년 현재 환경과 생태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와 ‘쓰레기 섬’¹⁾일 것이다.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쉬기를 두려워하고, 지자체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오염물질은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든 갈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섬은 소비주의의 산물이다. 피터 벤츠(peter Wenz)에 따르면 “이른바 소비주의란 사회가 소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즉 제한 없이

1)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비영리 기관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태평양 바다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은 약 7만9,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로 텍사스 주 면적의 2배에 달하며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크기라고 한다. <한국일보>, 「태평양 떠다니는 거대 ‘쓰레기 섬’」, 2018.03.31, 특약뉴스.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Wenz, 2005:198)” 이다²⁾ 소비주의사회는 소비가 마치 인간이 실현해야 할 미덕인 것처럼 조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소비주의는 자본을 토대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대량소비를 통해 축적한 자본은 다시 생산에 투입돼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과잉생산, 과잉공급의 문제는 온전히 소비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며 의무로 남겨진다. 그래서 소비에 동참하지 않는 행위를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시선도 있다.

신영복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 함축하고 있는 “자본 운동의 본질”은 “끝없는 확대 재생산과 대량 소비의 악순환”이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채택한 시스템은, 소비주의에 대한 이념을 공고히 하고, 수많은 재화를 생산한 뒤, 그 재화들에 대한 욕구를 극대화함으로써 그것들을 소비해내게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이다.³⁾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결코 쉽게 충족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소비주의 이념의 성립 요건이며 동시에 소비사회의 기반이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 섬 문제는 거대도시사회가 빚어내는 소비주의 삶의 양식의 결과물인 것이다.⁴⁾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그 근원에

2) 김완구, 「자본주의 소비문화에서 비롯한 생태위기 억제와 극복을 위한 ‘자발적 소박함’의 덕」, 『환경철학』 제24집, 2017, 126쪽 재인용.

3)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2009, 280-281쪽 참조.

4) 대량생산된 상품의 대량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가 소비욕을 자극하는 과대포장이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과대포장이 갖고 있는 허위성은 삶의 실질을 해치는 작용을 한다. 그럼에도 포장 사업의 주가폭등으로 포장산업은 갈수록 번창하

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욕망이 지구의 파멸을 부르는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피터 벤츠는 소비주의가 “무절제한 소비자들을 양성해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지” 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에 해를 끼치는 악덕에 의존” 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증가에 비례해서 유독물질이 증가되고 그 결과, 제3세계에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환경부정의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⁵⁾ 소비주의 사회는 소비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수준에 따라 신분의 우열을 가르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의 자본론』에서 자본을 통한 재산 증식과 노동임금을 통한 재산 증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소시민들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벗

는 추세다. (<한국경제>, 정영호 기자, 「시총 2500억 태림포장, 예상 매각가격이 1조원?」, 2018. 4. 25.) 포장산업은 다양하고 예쁜 포장, 품격 있는 포장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내용물의 격조를 높이는 효과를 노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한다. 쓰레기의 대량생산 요인은 과대포장뿐만이 아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소포장, 인터넷이나 홈쇼핑 구매로 늘어나는 택배 포장 등등, 삶의 양식 자체가 전 세대에 비할 수 없이 많은 쓰레기들을 양산하는 구조이다. 요즘 마트 진열대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소포장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소포장은 신선도 유지에 좋고, 가격단위가 낮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소포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또 가만히 앉아서 결제만 하면 원하는 상품이 신속하게 배달되는 택배산업의 발전도 환경파괴의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5) 김완구, 2017, 130-131쪽 참조. 이런 풍조가 바뀌지 않으면 바다는 곧 GPGP 같은 쓰레기 섬으로 뒤덮일지도 모른다.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속속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앞 다투어 전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태계위기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은 ‘제로웨이스트’ 운동,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등에 동참해서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쓰레기 제로’ 도전 한달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일이다”」, 2018. 04. 20, <매일경제>, 박대의 기자,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자” 2030 新에코세대의 도전」, 2018. 04. 10 참조.

어날 길이 없음을 자각한다. 그래서 임금노동으로는 도저히 얻기 어려운 재물, 욕심나는 물건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소셜 미디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데 톡톡히 한 몫을 거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마음의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 한다.

이런 소비풍조 뒤로 어마무시한 양의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쉽게 분해되지도 않지만 분해된다 해도 먹이사슬의 하부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 플랑크톤의 몸속으로 들어가 생태계의 생명력을 조직적으로 잠식한다. 이런 심각성을 간파하고 ‘플라스틱 없는 선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런데 현대사회구조에서 ‘플라스틱 없는 삶’이 가능할까?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이기에 이제 와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렵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⁷⁾

삶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리처드 그래그(Richard Gregg)가 제창하고 두에인 엘진(Duanae Elgin)에 의해 대중화된 ‘자발적 소박함’이 하나의 대안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⁸⁾ 생태

6) <조선일보>, 김은영 기자, 「플라스틱 없는 삶... 가루 치약, 대나무 빨대 쓰고 '포장'은 거부하는 사람들」, 2018. 04. 30.

7) GPGP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된 결과인데 비해 지금 우리 삶의 양식은 1세대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서울시민 1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0.94kg, 1년에 343kg이라고 한다. 이영경 기자, 같은 글.

8) 자세한 내용은 김완구, 2017, 참조 바람.

학적 위기 해결방안의 하나로 ‘소비주의 삶의 방식에서 자발적 소박함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우리 삶의 양식은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중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미세먼지, 쓰레기 섬과 같은 환경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생태담론은 생명의 영속성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 소박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피터 벤츠는 “검약, 감사, 절제, 자기개발, 헌신, 자비, 관대, 공감 그리고 정의와 같은 전통적인 덕”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⁹⁾ 그런데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사안에 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앞서 예로 든 전통적인 덕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자발적 소박함으로의 전환이 좀 더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나는 노자의 ‘거피취차(去彼取此)’ 이론을 도입해서 자발적 소박함으로의 전환 방법을 모색해보려 한다.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핵심은 우리가 무분별한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고 삶의 구조를 변혁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통적인 덕에 호소하면 자발적 소박함은 실천력

9) 김완구, 2017, 132쪽.

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생태위기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부딪치는 난제는 인간은 욕망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삶의 구조를 변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노자철학을 중심으로 욕망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구현해야 할 욕망’과 ‘해체시켜야 할 욕망’을 구분하고,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류한 뒤에, 그것을 ‘왜 버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생태문명건설에 기초가 될 주춧돌 몇 개를 생각해본다.

II. 거피취차

생태위기로 지구의 생명구조가 파괴되고 붕괴되어가는 조짐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생태위기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석과 진단이 있었고 대안적 해법도 많았다. 그럼에도 환경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분석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도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위기의 중심에 인위가 작동하고 있고, 그 주체는 물론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연스런 삶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삶을 선택하는가? ‘인간이 자연스런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생태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 노자철학에서는 천지만물이 모두 자연의 운행 법칙에 따라 무위적으로 존재하며 무불위를 실현하며, 인간도 도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면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¹⁰⁾ 그럼에도

10) 『道德經』 第25章: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인간은 인위한다. 인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마음이다. 인간은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생태위기는 인간의 마음이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욕망의 출처이고, 욕망의 향방에 따라 생태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면, 마음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려내고, 지켜야 할 것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너져가는 생태계의 중심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눈의 욕망과 배의 욕망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며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사물을 파괴하고 훼손함으로써만 존재가 가능하다. 노자에 따르면 인간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모두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근심과 영화가 모두 몸을 지니고 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몸이 없다면 근심이 있을 까닭이 없다.¹¹⁾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질 몸에 집착한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지구생명을 훼손하고 있으니 자연사물을 생각하면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몸이 필요로 하는

11) 『道德經』 第13章: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 【王弼注】: 生之厚 必入死之地 ……歸之自然也.

자연적 욕망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생존을 위한 자연파괴’와 ‘인위적인 욕망을 위한 자연파괴’ 사이에는 가늠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 파괴의 주된 요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예리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자연적 토대, 지지대, 받침대가 튼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인류문명의 붕괴는 물론이고 지구 자체의 붕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적 욕망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도덕경』에서 인간의 욕망은 ‘배와 뻘’로 대표되는 ‘자연적 욕망’과 ‘눈과 피’로 대표되는 ‘인위적 욕망’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자연적 욕망은 지키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고, 인위적 욕망은 해체시키고 도려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관련해서 볼 때, 배를 채우고 뻘을 튼튼하게 하는 생존형 소비는 자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 과시를 위한 감각적 소비는 인위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배와 뻘을 위한 소비는 과잉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배의 욕망이고, 배고프다고 해서 적정량 이상을 먹을 수는 없지만 눈을 위한 소비는 사치와 허영심에 빠지기 쉬우므로 과잉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자발적 소박함이 깃들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자제하지 않으면 자발적 소박함의 덕을 실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위적 욕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인위적 욕망이란 무엇인가? 노자철학에서 인위적 욕망은 감각적 쾌락추구와 관련이 깊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상하고,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¹²⁾

인용문에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 노자는 인위가 구분한 오색이 시각을 방해하고, 오음은 청각을 훼손하며, 오미는 미각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오색, 오음, 오미는 육체적인 감각을 상할 뿐이지만, 승마나 사냥 같은 활동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고 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오색, 오음, 오미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해치는 것이고, 승마나 사냥과 같은 부류의 골프나 스키 등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수의 감각적 욕망을 위한 자연 파괴이며, 얻기 어려운 재화는 극소수 사람들의 욕망을 위한 자연 파괴라 할 수 있다. 오색, 오음, 오미, 승마, 사냥 그리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모두 담담한 도의 순결성을 해치고 인간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고 할 때 ‘저것’은 눈의 욕망이고,

12) 『道德經』 第12章: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田獵, 令人心發狂. 難得之貨, 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이것’은 배의 욕망이다. 성인이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까닭은 자연적 생명력 보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눈의 욕망의 대상은 오색뿐만 아니라 오음, 오미와 같이 인위에 의해 구분되고 제한된 소리, 맛이 모두 해당된다. 인위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빛깔을 청, 백, 적, 흑, 황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오색으로 규정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궁, 상, 각, 치, 우의 다섯 음계로 나누어 오음으로 명명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맛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등으로 구분한다. 이 때 이 범주에 들지 못하는 빛깔, 소리, 맛들은 인간의 인식체계에서 제자리를 얻지 못한다. 인간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소리, 맛, 빛깔들이 각기 정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각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독특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설사 감각으로 포착한다 해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 인간의 지식체계의 범주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이 보기에는 이런 인위적인 구분 작업이 모두 자연의 본래성을 해치는 폭력적 행위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적 본성을 해치는 폭력성은 바로 인간의 인위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 욕망 곧 눈의 욕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이다.

소비주의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눈의 욕망이다. 배는 생물학적 요구에 응하는 반면, 눈은 쾌락적 요구에 반응하기 때문에¹³⁾ 배고픔은 소비증진의 원동력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눈의 쾌락적 요구를 부채질할 때 소비욕은 불타오른다.

13) 벤자민 슈워츠 지음/나성 옮김,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4, 318쪽 참조.

김형효에 따르면 눈은 “소유론적 욕망”의 실체이고, 배는 “존재론적 욕망”의 실체이다.¹⁴⁾ 소유론적 욕망은 명목가치를 따르고, 존재론적 욕망은 자연의 실질적 가치를 따른다.¹⁵⁾ “눈의 기능이 지배적인 힘을 상징한다면, 배는 그런 자의식이 전혀 없다. 배는 그냥 ‘배부르다/배고프다’의 두 가지 능력만을 함축한다. 배부르면 배는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오로지 배를 채우려는 자연적 본성(본능)에만 충실한다.” 그런데 “본능이 지능의 분별성에 의존하는 순간” 욕망의 방향성은 길을 달리한다.¹⁶⁾ 지능의 분별성에 의존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할 때 인간은 보다 사실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인위적인 가치체계를 추종하고 자연성을 외면하면 삶은 점점 더 허위의 맥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철학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참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인위적 욕망이 허위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허위의 맥락 속으로 빠져드는가. 그것은 눈의 명증성이 우리의 이성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김형효에 따르면 눈은 이성 개념을 감각적으로 상징화하며, 감각적인 것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눈은 플라톤 철학에서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상징으로 간주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명증한 것이기 때문”에 눈은 지배권의 상징으로 등극한다.¹⁷⁾ 눈은 이렇게 우리 삶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눈이 삶의 지배권을 획득함에

14) 김형효, 『마음 혁명』, 살림출판, 2010, 128-135쪽.

15) 박혜순, 「생명과 명실(名實)의 문제」, 『철학논집』 제32집, 2013, 195쪽.

16)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142쪽.

17) 김형효, 2004, 141-142쪽.

따라 우리 삶은 눈의 종용에 놀아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눈의 욕망을 위해 소비주의에 부화뇌동하고 실속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눈의 욕망에 치중하고 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소비 중심적 삶은 달리 표현하면 눈의 노예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도가의 성인은 실속 없는 명목 가치를 좇지 않고 자연적 욕망의 주체인 배를 위함으로써 삶의 지배권을 눈의 욕망에 맞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다면 눈의 욕망에 빼앗긴 삶의 지배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삶의 지배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생태적 사유로의 혁명이 절실히 요청된다. 생태혁명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즉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다. 생태혁명 담론은 결국 인간의 ‘의식 혁명’ 이고, ‘마음 혁명’이며, 거짓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인위적 욕망을 구현하고 풍요와 사치를 누리며 천지 만물과 더불어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 소박함과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만물과의 공존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인위적 욕망은 각양각생의 형태로 표현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은 귀찮은 것을 싫어해서 편리를 추구하는 안일주의가 큰 몫을 한다. 안일주의도 물론 감각적 쾌락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막대한 양의 자원파괴와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불특정다수의 삶에 해를 끼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변화를 기획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모두 이런 구

조로 되어 있는데 나 한 사람의 의식변화가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나 한 사람이 모여 이뤄지고, 나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국 웨일즈에서 ‘플라스틱 프리 마을’을 이끌고 있는 게일 투더는 한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한다. “‘나 혼자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한 명’이 있고 그들이 모이면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¹⁸⁾ 즉 소비의 형태 변화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주의가 아니라 소비 형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프리 마을’ 운동에서 쓰레기 섬 문제가 자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비 형태에서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 형태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소유욕과 소비주의의 관계이다. 소비주의는 인간의 소유욕에 기반해 성장해왔다. 소유에 집착하는 속성이 소비주의가 이 시대를 잠식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유욕은 “존재를 죽이는 행위다.” “소유는 존재망각의 도구”일 뿐이다.¹⁹⁾ 앞서도 언급했듯이 소유의 대상은 눈의 욕망,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지 존재유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사들이고 소유하기 위해

18) <중앙일보>, 김성탁 기자, 「[특파원 리포트]英 웨일스 바닷가 '플라스틱 프리 마을' 만드는 주민들」, 2018. 01. 28.

19) 박혜순, 「삶의 태도변화: 소유론에서 존재론으로」, 『생명연구』 제30집, 2013, 103쪽.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소유물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며 삶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눈과 귀와 입과 촉감의 만족을 위해 한번 밖에 없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삶인가?

김형효는 소유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한다. “죽음은 인생에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한계를 뜻한다.” 그 누구도 소유물을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²⁰⁾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물은, 얻기 어려운 재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쓰레기더미로 입고된다. 죽은 시신은 관 하나면 충분하다. 화장을 한다면 몸은 그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사는 동안 남긴 쓰레기들과 소유했던 물건들은 거대한 산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 분명하다. 혹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해도, 자신이 버리고 온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고, 자신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를 상처내고 굶아 죽게 만드는 살상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이다.²¹⁾

삶의 태도 변화는 인간 존재의 구원 차원에서도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거창하게 자연보전의 차원에서 자연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을 운운할 필요조차 없다. 일차적인 이

20) 김형효, 『마음 혁명』, 살림출판, 2010, 129쪽.

21) <JTBC 뉴스룸>, 왕주량 감독의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를 결정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감독의 생각은 간단하다. 미래 세대가 쓰레기로 둘러싸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왕주량 감독, 「“엄청난 대가 치를 것“...’플라스틱 차이나’ 감독의 메시지」, 2018-05-18 21:10.

유는 바로 인간 자신의 건강한 존재를 위해서이다. 우선은 우리 자신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기 위해서이고, 이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생존 가능한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자식은 미래의 나 자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차적 이유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 다음 혹시라도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면 죽음 뒤에 쉼어져야 할 마음의 빛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산업기술문명이 주는 모든 편리와 혜택을 뒤로 하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 하고 산업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소박함을 실천’ 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2. 견소포박 소사과욕

노자는 『도덕경』 19장에서 인간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견소포박 소사과욕(見素抱樸 少私寡欲)’을 제시했다. 인간 행위의 모델을 “도의 자연성과 자발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²³⁾ 우선 ‘견소포박 소사과욕’에 대한 몇 가지 해석부터 살펴보자. 성현영에 따르면 ‘견소는 화려한 걸치레를 버리는 것’이고, ‘포박은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소사는 공평하다는 것’이며, ‘과욕은 탐욕을 멈춘다’는 뜻이다.²⁴⁾ 여길보에 따르면 ‘소(素)’는 ‘질박

22)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인간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지금은 인간이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陳鼓應 著, 최진석 옮김, 『老莊新論』, 소나무, 2001, 151쪽.

해서 꾸밈이 없는 근본[無所與雜而非文]’을 말하고 ‘박(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원목의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상태[不散而非不足]’를 뜻한다.²⁵⁾ 이를 토대로 볼 때 ‘소(素)’와 ‘박(樸)’은 꾸미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질박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소박(素樸)’은 자연의 법칙과 존재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취할 최상의 행위법칙으로 “소박함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감싼다”는 뜻의 ‘견소포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 소박함으로 전환하자’는 실천담론에서 소박은 ‘견소포박’보다 ‘소사과욕’에 더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견소포박’의 소박은 생태학적으로는 해체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인위에 물들지 않은 참된 본성 그대로를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다. ‘자발적 소박함’의 실천담론은 불필요한 겉포장을 제거하고, 편리를 뒤로 하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소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유지 보존하자는 의미이므로, 인간의 참된 본성 회복이라는 심층적인 의미까지는 함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사로운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소사과욕²⁶⁾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 앞서 성현영은 ‘소사과욕(少私寡欲)’의 ‘욕(欲)’을 탐욕(貪慾)으로 풀이했다. 지나친 탐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보고

24) 성현영 지음, 최진석·정지욱 옮김, 『노자의 소』, 소나무, 2007, 234-235쪽.

25) 김형효, 2004, 192쪽.

26) 『道德經』 第19章: 見素抱樸 少私寡欲.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욕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도덕경』 통행본에서는 ‘욕(欲)’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욕(欲)’은 ‘욕(慾)’과 혼용되고 있고, ‘욕(慾)’이 ‘욕(欲)’의 속자(俗字)임을 감안하면 굳이 두 글자의 의미를 분석하고 분리하려는 시도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노자가 ‘욕(欲)’자를 써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거피취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다. ‘욕망(欲望)’과 ‘욕망(慾望)’은 음가는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 전자는 ‘하고자 하다’라는 의지를 함유하고 있고, 후자는 욕심이나 욕정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앞의 ‘욕망(欲望)’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뒤의 글자 ‘욕망(慾望)’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마음이 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글자 모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소사과욕(少私寡欲)’에서 ‘욕(欲)’은 인간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고 훼손하는 원천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가 주로 사용하는 ‘欲’자는 인위에 대한 욕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사과욕(少私寡欲)’의 ‘사욕(私欲)’이 의미하는 바는 인위의 마음, 인위하려는 기획 의지나 의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벤자민 슈워츠에 따르면 노자철학에서 ‘욕(欲)’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욕망은 식(食)·성(性)·주(住)의 생물학적 본능에 관한 욕구들의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문명에 의해 야기된 그런 종류의 욕망과 욕구들을 의미한다.”²⁷⁾ 이것이 통행본에서 마음심[心]이 빠진 욕(欲)자를 사

용하는 이유라고 본다. 노자가 보기에 인간의 마음은 지모, 지략, 지능, 꾀를 생산해내는 인위의 주체이다. 마음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인위인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비움[虛]’을 강조하는 것 같다. 최진석에 따르면 “허(虛)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위와 인식의 이상적 상태이다.”²⁸⁾ 그래서 『도덕경』에서 득도한 사람은 모두 아상을 해체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⁹⁾

노자철학에서 인간의 의도, 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인위적 행위는 자연적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과 허황된 욕망에 따르는 것이라고 여긴다. 인위는 자연적 사실에 반하는 행위다. 참이 아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심[心]이 빠진 욕(欲)자를 사용하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욕(欲)자에서 심적 활동에 포함된 정감의 요소와 이성적 의지를 모두 걷어 내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견소포박’이 “도의 자연성과 자발성”을 간직하고 품어두는 태도라면 ‘소사과욕’은 인위적인 행위를 최소화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소박함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노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의 자연성과 자발성”을 간직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다. 소비주의적 태도는 인위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비주의시대의 소비자는 ‘견소포박 소사과욕’과는 반대로 행동하게끔 부추김을 당한다. 즉 소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치스럽게 꾸미고 가꿔 걸치레에 신경 쓰게 만

27) 벤자민 슈워츠, 같은 책, 321쪽.

28) 최진석 지음,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146쪽.

29) 득도자의 “虛의 구체적 표현들”은 바로 “豫兮, 猶兮, 儼兮, 煥兮, 敦兮, 曠兮, 混兮”와 같은 단어들이다. 최진석, 같은 책, 147쪽.

든다. 이런 현상은 소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인간의 허약함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적 실체성을 드러내기 두려울 때 인공적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주체적이지 못한 행위이며 거짓된 행위이다. 이처럼 소유욕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위의 극대화가 인간의 자기파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유의 변혁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소비와 소유에는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이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은 ‘고귀한(좋은 혹은 필수적인) 소비와 소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과시를 위한 것은 ‘비천한 소비와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비천한 소비나 소유’를 다이어트하고 ‘고귀한(좋은) 소비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자 식으로 표현하면 감각에 구애되지 않는 소비, 즉 ‘눈[目]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배[腹]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다. 눈은 명목 가치를 중시하고 배는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인이 눈의 욕망을 줄이면 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 죽어가는 기아민 문제 같은 것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견소포박 소사과욕(見素抱樸 少私寡欲)’을 ‘자발적 소박함으로의 전환’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 드러내고 품어야 하는 ‘소박(素樸)’은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원형을 의미하고, 줄이고 비워야 하는 ‘사욕(私欲)’은 인위적 의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소박(素樸)’은 ‘배의 욕망’의 계열에 속하고, ‘사욕

(私欲)’은 ‘눈의 욕망’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견소포박 소사과욕(見素抱樸 少私寡欲)’은 소비주의적 삶에서 자발적 소박함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문명적 대안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산업사회의 허구성에 놓락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위한 소비인가?’, ‘누구를 위한 소비인가?’에 대한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숙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문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자연이 붕괴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다. 존재기반을 상실하면 소유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³⁰⁾ 따라서 존재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유욕에 대한 욕망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 12장에서 버려야 할 욕망과 취해야 할 욕망을 구분하는 간결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이 눈의 욕망을 위한 것이면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배의 욕망을 위한 것이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노자가 거피취차로 제안하는 생명사회의 실현 방법이다.

거피취차(去彼取此)를 미래생존전략의 방법론으로 채택하면 자연적 욕망은 취하고 인위적 욕망은 버려야 한다. 인위적 욕망은 생명보전과 관계없는 것이고 생존 자체와도 무관한 것이지만 자연적 욕망은 우리의 생명보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지배권을 탈환하지 못하고 노예적 삶을 살다가 자멸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존재자이다. 그리고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욕망은 아마도 인위에

30) 박혜순, 2013, 105쪽 참조.

기초한 눈의 욕망일 것이다. 거피취차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소비주의시대에 정감과 이성적 욕구를 절제하고 욕망을 다 이어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회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살기도 어렵다. 개인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기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소비욕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다. 자발적 소박함이 추구하는 소비 형태는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소유론적 욕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위적으로 과시하려는 의지는 명목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남들이 탐낼 만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성현영에 따르면 감각을 자극하는 현상적인 대상들은 헛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³¹⁾ 헛된 환영으로 자신을 감싸고 그것에 의존하면 소비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의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다. 또한 소유론적 욕망에 집중하는 것은 존재론적 욕망실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삶을 피로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배의 욕망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배가 채워지는 순간 저절로 멈춰지므로 자발적 소박함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³²⁾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비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위적 욕망인 눈의 욕망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된다.

노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눈의 욕망에 눈뜨지 못하게 하면

31) 성현영 지음, 최진석·정지욱 옮김, 『노자의 소』, 소나무, 2007, 99쪽 참조.

32) 박혜순, 2013, 196쪽 참조.

세상의 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유론적 욕망을 지양하고 존재론적 욕망 충족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생명가치의 실현을 위한 실천은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백성들의 합의가 따라야 한다. 노자는 무위의 정치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진 이를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욕심 낼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화시키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욕심 내지 않게 한다. 대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³³⁾

성인은 스스로 먼저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화시키는 대신 배를 채우고 뼈를 강하게 하고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인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가치를 실현한다.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아는 자’는 산업자본주의의 구조를 아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감히 자본을 통한 이익증대에 힘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치적 리더가 아니고 생태위

33) 『道德經』 第3章: 不尚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知者, 不敢爲也. 爲無爲則無不治.

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명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시민들이다. 우리 각자가 자발적 소박함의 덕을 실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소박하고 고귀한 소비 형태로 사회적 풍조가 바뀐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생태혁명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 생태혁명의 주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산업자본주의의 노예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생명파괴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선택에 앞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편리를 추구하는 욕망,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소비주의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실 자발적으로 소박함을 실천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관계적 맥락에서 볼 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양식이 빚어낸 문제들이 곧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발적 소박함이나 자발적 불편 감수가 아직은 선언적으로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몸의 오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한다. 오감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오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그래서 오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이지 못할 때 오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며”, “입맛을 상하고”, “마음을 미치게 하고”, “행동을 방해”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좌

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감에 종속되면 주체적인 선택과 삶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오감에 종속되지 않아야 몸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감각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성인은 어떻게 감각적 지배를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화시키고 그 뼈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왕필의 주해에 따르면 “마음은 껍을 품고 배는 음식을 품는다.” 성인이 마음에서 지모를 비우고 무지로 채우는 것은, 뼈는 몸의 근간이면서도 지능적이지 않지만 뜻은 지능적으로 일을 만들어 어지럽히기 때문에³⁴⁾ 성인은 마음에 맡기지 않고 사실의 법칙에 정직하게 순응하는 배와 뼈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마음은 일을 제멋대로 합리화하고 어지럽히는 능력을 담지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맡기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힐까 우려되어 경계하는 것이다. 반면에 배와 뼈의 판단은 소박한 욕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을 그르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인의 다스림이 배와 뼈의 소박한 욕망에 기초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며, 자연적 사실이 아무 걸림 없이 수행될 수 있게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간 자체의 자기보전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4) 『道德經』 第3章 【王弼注】: “心懷智, 而腹懷食. 虛有智而實無知也.” “骨無知以幹, 志生事以亂, 守其真也.”

Ⅲ. 저것을 버리고 이것으로

요컨대 거피취차에서 ‘피(彼)’와 ‘차(此)’는 간단히 말해서 세계관의 차이다. 어떤 세계관에 따라 문명을 건설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형태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아름드리나무도, 구층의 누대도, 천릿길도 모두 맨 처음 시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³⁵⁾ 노자는 이런 세계관[此]과 저런 세계관[彼]을 보여주고 각각을 취했을 때 예측되는 결과를 말해준 뒤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차 없이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고 권한다.³⁶⁾ 저런 세계관[彼]을 채택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세계관은 인위적인 것이고, 이 세계관은 무위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욕의 팽배는 환경재난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고, 소비욕의 주체가 특정 개인의 마음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마음의 혁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태혁명의 방법론으로 거피취차라는 사유의 틀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 취지는 ‘인위적 욕망을 떠나 자연적 욕망을 실현하는 구조로 돌아가’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영속성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거피취차는 『도덕경』에서 세 번 나온다.³⁷⁾ 세 번이면 그

35) 『道徳經』 第64章: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36) 『도덕경』에서 取此에 해당하는 방법은 매우 많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불상현不尙賢(3장)”, “소사과욕少私寡欲(19장)”, “습명襲明(27장)”, “무위無爲, 호정好靜, 무사無事, 무욕無欲(57장)”, “대제불할大制不割(28장)”, “복귀復歸(14장 외)”, “포일抱一(10장)”, “겸하謙下(66장), 도하道下(32장), 겸비謙卑(42장)”, “민민悶悶(20장)”, “미명徵明(36장)”, “광이불요光而不耀(58장)” 등이다. 모두 중화적 사유를 지향하는 통치자의 존재방식이며, “구분”과 “분별” 그리고 “가름”을 막는 노자의 의도가 담긴 언명이다.

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무상생의 형이상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거피취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배의 실질적 가치를 눈의 명목가치보다 중시하고(12장), 둘째 실질적 가치를 이상적인 문화체계보다 중시해서 꽃의 화려함보다 열매라는 실질적 가치를 중요시하고(38장), 셋째 정치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가 아니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72장)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³⁸⁾ 따라서 거피취차의 핵심은 한 마디로 인위적인 가치체계를 벗어나 자연의 상덕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1. 상덕과 하덕

쓰레기 섬은 인간이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하덕을 추구한 인위적 문명의 결과이다. 노자가 보기에 자연의 법칙은 상덕(上德)으로 운행되는데 인간은 이와 달리 하덕(下德)을 추구한다. 왕필의 주해에 따르면 상덕은 구하지 않아도 얻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하덕은 구해서 얻고 인위적으로 이루므로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³⁹⁾ 얻는 게 있어도 부작용이 따른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시도하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성취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37) 『道德經』 第12章: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第38章: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有, 道之華, 而遇之始. 是以, 大丈夫, 處其厚, 不居其薄. 處其實, 不居其華, 故去彼取此. 第72章: 是以聖人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 故去彼取此.

38) 최진석 지음, 2001, 312-313쪽 참조.

39) 『道德經』【王弼注】 第38章: “是以上德之人…… 不求而得 不爲而成.”, “下德求而得之 爲而成之”, “求而得之 必有失焉. 爲而成之 必有敗焉”. 박혜순, 『도가의 관점에서 본 물에 관한 생태 철학적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187쪽 참조.

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세계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초래한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하덕의 인위성이 상덕으로 저절로 구현되는 생태계의 법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의 받침대,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인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다는 것이다. 하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태계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상덕은 무위로 운용되고 인간의 하덕은 유위로 운용된다. 오늘날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환경 재난 상황은 인위적 문명의 말로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쓰레기 섬이 함축하는 바는 쓰레기 수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하덕의 방법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상덕을 따를 필요가 있다. 최진석에 따르면 노자가 지향하는 사회는 각자가 자신의 “내적 생명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이다.⁴⁰⁾ 상덕을 따르면 자연의 법칙이 다시 재가동되고 자연이 제 기능을 하게 되어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의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삶을 꽃피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덕으로의 회기를 위해서는 실존양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그에 앞서 생태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덕을 버리고 자연의 상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속성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 최진석, 「생각을 깨우다 : 바로 여기 있는 자신의 긍정」, G.Forum, 2010.12.14, 5쪽.

2. 손님노릇

『도덕경』 7장에서 자연이 생명의 영속성을 구현하는 모습은 천지장구로 드러난다. 천지는 자연의 상덕에 의해 운행되며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현한다.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⁴¹⁾ 천지는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그물망 자체의 조화를 중시해서 타자를 살게 함으로써 더불어 자신도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천도는 이처럼 타자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적 삶을 수행한다. 천지가 “자기만 살고자 애쓰면[自生]” 그것은 무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천지가 “자기만 살고자 애쓰지 않으니[不自生]” 무위할 뿐만 아니라 장구하는 효과까지 거두는 것이다. 천지는 유무상생의 관계망 속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자생(不自生)”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생(緣生)의 법칙과도 같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는 “부자생(不自生)” 하는 것이다.

“부자생(不自生)”은 천지가 무불위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존재방식은 대표적으로 물의 존재양태에서 볼 수 있다. 물은 “부자생(不自生)”의 방식을 통해서 자리이타라는 무불위를 이룬다. 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생(不自生)”으로 무위를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존

41) 『道徳經』 第7章：天地所以能長久者 以其不自生.

재론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 세계의 생명력을 영속적으로 이끌어간다. “부자생(不自生)”의 법칙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양함으로써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그 무엇에도 주인노릇하지 않는 태도가 “부자생(不自生)”하는 것이다. 천지장구를 바란다면 자연에 대해 감히 주인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적 맥락에서 도가가 취하는 태도는 손님노릇이다. “나는 감히 주인노릇을 하지 않고 손님노릇 한다.”⁴²⁾ 손님노릇은 인간이든 자연 사물이든 타자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태도, 곧 주인노릇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무위의 다른 표현이다. 달리 말해서 무위로 도가 저절로 구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지만물이 각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태도가 바로 손님노릇이다. 노자철학에서 손님노릇의 모델은 바로 대도이다. 대도는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만 말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만물을 입히고 기르지만 주인노릇은 하지 않는다. 만물이 거기로 되돌아가지만, 주도하지 않으니, 크다고 이름붙일 만하다.”⁴³⁾ 대도의 모습이 이러하므로 이를 본받아 주인행세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주의시대의 소비형태는 배와 뺨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감각적인 욕망에 따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 감히 주인노릇한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자연에 대해 주인노릇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이 출현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손님이고 나그네일 뿐인데

42) 『道德經』 第69章：吾不敢爲主而爲客.

43) 『道德經』 第34章：萬物恃之而生而不辭，功成不名有．衣養萬物，而不爲主．萬物歸焉，而不爲主，可名爲大．

그 나그네가 고마움도 모른 채 제멋대로 주인노릇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소비주의와 같은 저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세계[彼]’는 주인노릇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들이 설정한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이 세계[此]’는 비분별지에 따라 운행된다. 자연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도 지배이념도 설정하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살아간다. 주인노릇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을 때에만 할 수 있는데 노자철학에서 이 세계의 구조는 그 어느 것도 중심이 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유무상생의 형이상학에 따르면 자기의 존재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무 것도 주도할 수 없고 주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노자가 “무위의 행[無行]을 실천하는” 이유이다.⁴⁴⁾ “무위의 행[無行]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주도하지 않는 손님노릇이다.

노자가 생각하는 이 세계의 모습은 관계론적이다. 따라서 어느 것도 고정적이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경계가 불분명하고 애매하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황(恍)’과 ‘홀(惚)’이다. “도라는 것은 오직 황홀하다. 홀하고 황하구나.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구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다. 요하고 명하구나. 그 가운데 실정이 있다.”⁴⁵⁾ ‘황’과 ‘홀’이 서로 꼬여 있을 때 형상(形象)이 존재하고, 요(窈)와 명(冥)이 교차될 때 그 사이에 실정(實情)이 있다는 것이다. ‘황’과 ‘홀’은 의미상으로 거

44) 『道德經』 第69章：是謂行無行.

45) 『道德經』 第21章：道之爲物，惟恍惟惚。惚兮恍兮，其中有象。恍兮惚兮，其中有物。窈兮冥兮，其中有精.

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둘 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하여 경계가 모호해서 분명히 밝히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모두 미묘하고 흐릿하여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를 묘사하는 말들이지만, 황은 너무 밝아서 흐릿해진 상태이고, 홀은 어둠 속에서 흐릿해진 상태이다. 사실 ‘황’과 ‘홀’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노자는 도가 이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흐릿한 ‘황’과 ‘홀’의 교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⁴⁶⁾ 황홀과 마찬가지로 요명(窈冥)도 같은 의미다. “요(窈)는 유(幽)와 같은 의미이다. 명(冥) 역시 아득하다든가 어둑하다는 뜻인데, 특히 아득하여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다.”⁴⁷⁾ 도의 성질이 그러하니 도를 체득한 성인 역시 이처럼 애매모호한 특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어느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 ‘황’과 ‘홀’이 서로 꼬여 있는 이러한 세계에서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황’과 ‘홀’ 자체도 애매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도의 모습이 이러한데 감히 어느 쪽을 선택해서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 세계에서 인간이 더 이상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이유이다.

46) 최진석 지음, 2001, 193쪽 참조.

47) 최진석 지음, 2001, 194쪽. “당대의 노자 주석가 이약(李約)은 이 황(恍)과 홀(惚)을 구분함에서 ‘황’을 유(有)계열과, ‘홀’을 무(無)계열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황(恍)은 유(有)의 계열이지만 100% 유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홀(惚)이 무(無)의 계열이지만 100% 무라고 언명하기도 힘든 애매한 중간지대를 뜻한다고 이약은 부연했다.”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04), 207쪽). 소자유는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황홀(恍惚)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이 모두가 다 애매함을 뜻하는 말들이다.

IV. 나가며

노자철학에서 거피취차를 통해 ‘저것[彼]’를 제거하고 ‘이것[此]’를 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此]’이 기본적인 생명력과 평화스런 삶을 보장하는 반면 ‘저것[彼]’은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자의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거피취차의 사유형식에 기초한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하며 자연에 대해 더 이상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손님노릇을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갓난아기처럼 무위하면서도 무불위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무위로 ‘존재론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아기는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행복해할 줄 안다. 남과 다툴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탐낼 줄도 모른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는 벌이나 독충도 아기는 쏘지 않고, 맹수도 아기를 해치지 않고, 맹금도 아기를 덮치지 않고 보호한다.⁴⁸⁾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기의 온전함을 훼손시킬 수 없다.⁴⁹⁾ 아기가 생존하는 방식이 곧 ‘이[此]’ 세계의 존재방식이다. 노자가 보기에 자연성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생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 인위적인 삶은 ‘저[彼]’ 세계가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다. ‘저[彼]’ 세계를 벗어나 도의 법칙

48) 『道德經』 第55章：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

49) 『道德經·王弼注』 第55章：含德之厚者 不犯於物 故無物以損其全也.

에 따라 사는 ‘이[此]’ 세계로 돌아오면 갓난아기처럼 누구도 그를 해치지 않고, 그의 덕을 훼손시키거나 참됨을 해치지 못하며, 조화의 지극함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만물이 저절로 교화되고[萬物自化]와 천하가 저절로 안정되는[天下自定] 경지이다. 『도덕경』 37장은 통치자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백성을 교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저[彼]’ 세계를 형성하고, 무명(無名)의 순박함으로 그저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不欲]은 ‘이[此]’ 세계를 형성한다. “무명의 순박함은 또한 하고자 함이 없다.”⁵⁰⁾ 박(樸)은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 자연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순박함[樸]을 지키면 사물의 참됨을 해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므로 만물이 스스로 찾아와 손님노릇을 하고 도가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⁵¹⁾ 이처럼 사회가 도에 의해서 운행되는 시스템이면 굳이 일부러 백성을 교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백성은 저절로 교화될 것이고, 통치자가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고요히 지켜보기만 해도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⁵²⁾ ‘이[此]’ 세계를 형성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놀랍게도 ‘만물자화’와 ‘천하자정’이라는 효과라는 것이다. 무위하면서도 만물이 저절로 변화되고 이 세계가 저절로 안정된다면 일부러 작위

50) 『道徳經』 第37章：無名之樸 夫亦將無欲.

51) 『道徳經・王弼註』 第32章：故將得道 莫若守樸. 夫智者 可以能臣也. 勇者 可以武使也. 巧者 可以事役也. 力者 可以重任也. 樸之爲物 憤然不偏 近於無有 故曰莫能臣也. 抱樸爲無 不以物累其眞 不以欲害其神 則物自賓 而道自得也. 참조.

52) 『道徳經』 第37章：“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不欲以靜 天下將自定”. 노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지는 교화에 가치를 두고 있다.此의 세계관에 따라 문명을 건설하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화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나는 거피취차가 삶의 혁명을 유도하고 자리이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사유로 채택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거피취차는 수많은 한 명이 실천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피취차에 기반한 자발적 소박함의 실천은 반생명적 소비문화에서 생명문화로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道德經』, 中國子學名著集成 046, 珍本初編 道家子部, 台北: 中國子學名著集成編印基金會, 1978.
- 성현영 지음, 최진석·정지욱 옮김, 『노자의 소』, 소나무, 2007.
-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 _____, 『마음 혁명』, 살림출판, 2010.
-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 By Paul J. Lin, *A TRANSLATION OF LAO TZU' S TAO TE CHING AND WANG PI' S COMMENTARY*,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7.
- 陳鼓應 著, 최진석 옮김, 『老莊新論』, 소나무, 2001.
-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2009.
- 벤자민 슈워츠 지음/나성 옮김,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4.
- 김완구, 「자본주의 소비문화에서 비롯한 생태위기 억제와 극복을 위한 ‘자발적 소박함’의 덕」, 『환경철학』 제24집, 2017.
- 박혜순, 『도가의 관점에서 본 물에 관한 생태 철학적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_____, 「삶의 태도변화: 소유론에서 존재론으로」, 『생명연구』 제30집, 2013.

_____, 「생명과 명실(名實)의 문제」, 『철학논집』 제32집, 2013.

최진석, 「생각을 깨우다 : 바로 여기 있는 자신의 긍정」, 2010년 G.Forum, 2010. 12. 14.

<한국일보>, 「태평양 떠다니는 거대 ‘쓰레기 섬」, 2018.03.31, 특약뉴스.

<한국경제>, 정영호 기자, 「시총 2500억 태림포장, 예상 매각가격이 1조원?」, 2018. 4. 25.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쓰레기 제로’ 도전 한달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일이더라”」, 2018. 04. 20.

<매일경제>, 박대의 기자,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자” 2030 新에코세대의 도전」, 2018. 04. 10.

<조선일보>, 김은영 기자, 「플라스틱 없는 삶... 가루 치약, 대나무 빨대 쓰고 ‘포장’은 거부하는 사람들」, 2018. 04. 30.

<중앙일보>, 김성탁 기자, 「[특파원 리포트]英 웨일스 바닷가 ‘플라스틱 프리 마을’ 만드는 주민들」, 2018. 01. 28.

<JTBC 뉴스룸>, 왕주량 감독, 「“엄청난 대가 치를 것“...’플라스틱 차이나’ 감독의 메시지」, 2018-05-18 21:10.

Ecological discourse of 21st century, rejects that to prefer this

Park Hye-Soon
(Sogang Univ.)

GPGP, a waste island found in the North Pacific is one of the signs that the Earth is turning into an inhabitable region. This result of consumerism entails that plastic waste systematically destroys the life of the ecosystem on the food chain from bottom to top. One of the practical discourses addressing this issue suggests a shift from consumption-oriented life to spontaneous simplicity as an intrinsic solution to the problem that we are facing in the 21st century.

However, how would this discourse execute the switch? In response to the question, this article will closely look at the 'Tao Te Ching's framework called that "He rejects that to prefer this" as a solution; namely, natural desires are to be taken and artificial desires to be abandoned. Quoting Lao's statement in 'Tao Te Ching' as to "Leave that one out and take this one", we can interpret 'that one' as consumption-oriented 'desire of the eyes', and 'this one'

indicates 'desire of the belly', which is crucial to existential maintenance for humankind. Not only is 'that one' a prerequisite for the consumerist ideology, but also serves it as a driving force for consumption and threat on our foundation for existence by weakening the nature's viability. Hence, we shall be required to move away from the possessive 'that one' and return to the ontological desire of 'this one'. It is due to difficulty of acknowledgment of the value of life in this world without changing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Key words : consumerism, spontaneous simplicity, desire of the eyes, desire of the belly, rejects that to prefer this